

결혼식!

7월 22일 목요일은 저희의 사랑하는 친구인 리바이브 이스라엘의 팀원의 결혼식입니다. 결혼식에는 아직 예슈아를 영접하지 않은 많은 친지 및 친구들이 참석할 것이기에, 저희는 이 놀라운 커플이 주님 앞에 사랑과 언약을 공개적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의 복된 임재가 그들을 덮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.

카찌르 집회

카찌르 컨퍼런스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. 주님을 처음 만나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, 많은 이스라엘 청소년들은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열정적으로 갈망하고 있습니다. 이번 주엔 아세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. 저희는 주님께서 이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으시고, 차세대가 이 곳의 예슈아의 몸 가운데 자리를 잡기를 기도합니다.

아세르의 새 책

오랜 공백 끝에 아세르가 새 책을 썼습니다! 최근에는 최종 편집 단계에 있으며, 거의 완성에 이르렀습니다. 이 책의 강력한 메시지가 읽는 모든 이들에게 파장을 남기를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. 책의 주제에 대한 소개를 위해 아래에 일부를 소개합니다.

아브라함과 점심을 같이한 것은 누군가?

아세르 인트레이터 저

1장

유대교인들이 흔히 믿는 바에 따르면,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람밤¹의 믿음의 13가지 근본원리와 ‘이그달²’이라는 공중 기도-찬송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.

אין לו דמות הגוף ואין לו גוף

“하나님께서 육체의 형태도 없고 육도 없다!”

이러한 생각은 또 신 4:12에서 파생된 것입니다.

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들었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는 나라!

וידבר יהוה אליכם מתוך האש קול דברים אתם שומעים ותמונה אינכם רואים זולתי קול

(דברים 4:11)

¹ 본명은 모세스 마이모니데스(Moses Maimonides)로 중세의 저명한 유대 철학자이자 가장 위대한 토라 학자 중 하나로, 스페인에서 출생(1135)해 이집트에서 사망(1204)했다.

² יגדל(‘찬미하다’라는 뜻으로, Moses ben Maimon이 정리한 13조 신앙 고백에 기초하여 Daniel ben Judah Dayyan이 작성한 유대 찬송)

그러나 이 구절은 하나님께 형태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. 시내 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형태도 보지 못했다고 말할 뿐입니다. 문맥을 따라 보면, 이 구절은 하나님의 가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. 형상을 새겨 만들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(15 - 23절).

하나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믿음은 일부 맞지만 일부 틀린 것입니다. 하나님의 비가시성은 신약에서도 다시 되풀이되어 있습니다.

- 요 1:18 -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...
- 요 5:37 - 너희는...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
- 요 6:46 -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
- 골 1:15 - 그는 본이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형상이요
- 딤후 1:17 - 만세의 왕 곧...본이지 아니하고
- 딤후 6:16 -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치대
- 요일 4:12 -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
- 요일 4:20 -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...

이 모든 구절들을 통해,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쉽게 이해가 됩니다. 그러나 문맥을 고려해 보면 다른 그림이 떠오릅니다.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. 오히려 우리의 타락한 상황 탓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의 충만함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죽게 되리라는 것이지요(출 33:20). 이 차이에 대해서는 2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.

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.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, 우리 조상들과 선지자들이 때때로 ‘누군가’를 보았습니다. 아브라함은 이 ‘누군가’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.

창 12:7 - 여호와³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내시니...
ויראה יהוה אל-אברם...

창 15:1 - 여호와³의 말씀이 야벳³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시니...
היה דבר-יהוה אל-אברם במחזה

창 17:1 - 여호와³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내시니...
ויראה יהוה אל-אברם

창 18:1 - 여호와³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니...
ויראה אליו יהוה באלוני ממרא

위 구절들에서 ‘나타났다’는 히브리 단어는 ‘보다’라는 동사의 수동형입니다. 분명히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보았다는 말이며, ‘아브라함에게 보여졌다’라는 번역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

³ YHVH(יהוה)

첫 세 경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누구, 혹은 무엇을 보았는지 전혀 힌트를 얻을 수 없습니다. 그러나 18장에서는 꽤나 세밀하고 구체적인 묘사가 나옵니다. 대학 교수들 및 랍비 주석가들은 이 장을 문자적, 평면적으로 해석(⁴pshat)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을 장황하게 합니다. 허나 본문은 꽤나 명료하며 심지어 그 묘사의 세밀성에 있어 물리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

압도적이며 불가피한 진리는, 여호와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. 그 분께서는 아브라함과 점심을 함께하시며 다가올 사라의 임신에서부터 임박한 소돔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중요 사안에 대해 논의하십니다. (시간을 좀 내어 창 18장을 전부 읽어 보신 후에, 함께 성경을 계속해서 분석해 보길 원합니다.)

⁴ Peshat(프샤트): ‘단순한’이라는 뜻으로, 유대 성경 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네 가지 방법 중 하나인 액면 그대로의 해석법